

##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yth of Silla's SeondoSeongmo

---

저자 (Authors)	김선주 Kim, Sun-Joo
출처 (Source)	<a href="#">사학연구 (99)</a> , 2010.09, 1-33(33 pages) <a href="#">Sahak Yonku :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99)</a> , 2010.09, 1-33(33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사학회</a> 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1307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13072</a>
APA Style	김선주 (2010).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사학연구(99), 1-3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8 14:35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김 선 주\*

머리말

- I. 신라 건국신화로서 시조모 전승
  - II. 선도산의 역사지리적 환경
  - III. 사료국에서 돌산고허촌의 위상
- 맺음말

## 요약

본 논문은 선도성모 전승이 신라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선도성모 전승은 신라에 토착적인 시조모 전승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정착되는 시조모 전승은 신라 건국신화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혁거세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 신화 외에도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건국신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혁거세보다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이 아니었을까 한다.

---

\* 다산학술문화재단 전임연구원

투고일: 2010년 5월 14일

심사일: 2010년 5월 18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일

신라인들은 시조모가 선도산에 살면서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겼다. 시조모 전승의 무대가 되는 선도산은 오늘날에도 경주에서 선도산으로 부르고 있는 그 곳으로 비정하였다. 서약으로도 불리는 선도산은, 그 외에도 서술산·서연산·서형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이름은 최고, 높다는 의미의 ‘수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라인들은 선도산을 최고의 산으로 여기고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선도산 일대에는 선사시대와 신라시대에 문화 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경주 시내 분지에서 신라 통일 이전 시기의 문화 유적이 선도산 유역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신라에서 선도산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을 형성했던 육촌 중에 하나인 돌산고허촌을 주목하였다. 돌산고허촌은 혁거세로 상징되는 집단보다 경주에 선주한 토착세력인 육촌 중에 하나로, 혁거세 세력이 대두되기 전에 경주지역을 주도했던 중심촌이었다.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의 시조가 내려왔다고 여겨진, 돌산고허촌의 성산이었다. 선도산의 원형이름인 수리는 고허촌이라는 이름이나, 고허촌장으로 표현되었던 소벌과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혁거세 천강 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알영의 출신과도 관계가 있는 돌산고허촌은 육촌으로 대표되는 혁거세 이전 선주 세력들을 이끌었던 중심촌이었다. 돌산고허촌의 조상신이 강림한 성산으로 여겨졌던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이 경주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사로국 초기에는 사로국을 대표하는 진산으로 숭배되었다.

그러나 혁거세로 대표되는 세력이 대두되면서 돌산고허촌은 주도권을 상실했고, 선도산의 위상 역시 변화되었다. 이제 돌산고허촌의 독자적인 시조전승과 제의체계는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 국가 제의 속에 편입되었다.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에서 돌산고허촌

## 신라 선도성모 전승의 역사적 의미

은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역할이나 시조비인 알영의 출신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높다, 최고 산의 의미로 ‘수리’로 불렸던 선도산은 중고기에 이르러서는 오악의 하나인 서악으로. 통일기에는 삼사 가운데 소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특히 신라의 건국신화는 혁거세를 중심으로 정립되면서 선도산을 무대로 했던 시조모 전승은 민간전승으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 신라, 건국신화, 선도성모, 시조, 선도산, 돌산고허촌

## 머리말

신라의 건국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탄생담을 중심으로 하는 전승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신라의 건국신화는 시조모가 등장하여 시조를 낳는 고구려·백제의 건국신화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신라·가야의 건국신화를 부부 중심의 천남지녀형(天男地女型)이라 하여, 고구려·백제와 같은 시조모가 등장하는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과 다른 계통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1)</sup>

그렇지만 신라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신화 외에 고구려와 백제와 같이 시조를 낳은 시조모 전승이 있었다. 선도성모(仙桃聖母) 전승이 그것인데,<sup>2)</sup> 선도성모의 존재는 우리나라 고대 양대 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모두 보인다. 이는 신라사에서 선도성모 전승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도성모 전승에 대해서는 선학들도 주목해 왔다. 특히 국문학·민속학계에서는 고대 건국신화의 측면에서 선도성모의 정체성과 계통 문제, 선도성모 신화의 형성과정, 혁거세 신화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도성모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sup>3)</sup> 역사학계에서는 주로 산신·지모신앙과 관

- 
- 1) 이지영, 1995, 『한국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60쪽.
  - 2) 문헌에는 선도성모, 서술성모, 선도산 신모 등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형적인 용어가 무엇인지를 차지하고 선도성모로 통칭하고자 한다. 공간적 무대로 선도라는 명칭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의 신격보다 건국시조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성모라는 호칭이 잘 표현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 3) 황해강, 1971, 「朴赫居世神話의 一研究」, 『新羅伽倻文化』 3.

련되어 선도성모 전승을 언급하거나, 전통신앙과 외래종교와의 습합을 보여주는 방증 자료로 이용하였다.<sup>4)</sup> 최근에는 선도성모의 정체성, 서왕모 신앙과의 관계, 선도성모 서사의 담론 분석 등 선도성모를 전론으로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5)</sup>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고에서도 ‘선도성모’ 전승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선도성모 전승의 신화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해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신화라는 것이 내용적인 면에서 허황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정도 역사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건국신화는 신화적 형태로 이루어졌고, 후대 문헌으로 정착되

- 
- 김현룡, 1980, 「한국 고대신설화의 연구」, 『인문과학논총』 12, 건국대 인문과학연구소.
- 천혜숙, 1991, 「여성신화연구(1); 大母神 象徵과 그 變容」, 『民俗研究』 1, 안동민속학연구소.
- 나경수, 1993, 『한국의 신화연구』, 교문사.
- 김준기, 1995, 『한국의 신모신화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철중, 1997, 『한국도래신화연구』, 백산자료원.
- 서대석, 2001,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 박상란, 2005, 『신라와 가야의 건국신화』, 한국학술정보.
- 4) 손진태, 1948, 「朝鮮 古代 山神의 性에 就하여」,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을유문화사.
- 김상기, 1964, 「國史상에 나타난 건국설화의 검토」, 『학술지』 5권1호, 건국대학교.
- 김철준, 1975, 「東明王篇에 보이는 神母의 性格」,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 홍순창, 1983, 「新羅 三山·五岳에 대하여」, 『新羅民俗의 新研究』(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4), 서경문화사.
- 강영경, 1991, 『신라 전통신앙의 정치·사회적 기능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 5) 조현설, 2006, 「선도성모는 정말 불사를 좋아했을까」,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 金台植, 2007, 「고대 동아시아 西王母 신앙 속의 신라 仙桃山聖母」, 『文化史學』 27.
- 윤미란, 2007, 「선도성모 서사의 형성과 의미」, 『한국학연구』 16, 인하대한국학연구소.
- 천혜숙, 2007, 「서술성모의 신화적 정체」, 『동아시아고대학』 16; 2008, 「선도성모 담론의 신화학적 조명」, 『구비문학연구』 26.

는 과정에서 변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이면에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선도성모 전승이 신라 상고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사료에 나타난 선도성모 전승을 검토하면서 선도성모 전승이 신라 건국신화로서의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선도성모 전승의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도산의 역사 지리적 환경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조모 전승의 무대인 선도산과 관련하여 사료 육촌가운데 하나인 돌산고허천의 존재를 주목해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선도성모 전승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초기 신라사회의 모습과 성장과정에 대한 해석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I. 신라 건국신화로서 시조모 전승

선도성모 전승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에서부터 보인다. 『삼국사기』편찬자인 김부식은 신라본기 경순왕조(敬順王條)에서 사론(史論)으로 선도성모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① 정화연간에 우리 조정에서 상서 이자량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는데, 신(臣) 부식(富弼)이 문한의 임무를 띠고 보좌하여 따라갔다. 송나라에 들어가 우신관(佑神館)에 나아갔는데, 한 집에 선녀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관반학사(館伴學士) 왕보(王黼)가 말하기를, “이것은 귀국의 신인데

공은 아시는지요?”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옛날에 중국 황실의 딸이 남편 없이 임신하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해동(海東)의 시조가 되었고, 황제의 딸은 지선(地仙)이 되어 길이 선도산(仙桃山)에 있으니 이것이 그 형상입니다”고 하였다. 나는 또 송나라 사신 왕양(王襄)의 동신성모(東神聖母)에게 제사한 제문을 보았는데, ‘어진 사람을 낳아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글귀가 있었으므로 동신은 곧 선도산의 신성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sup>6)</sup>

김부식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여선(女仙)의 상(像)을 보고 그곳에서 중국인에게 들은 내용이라며 위와 같이 ‘선도성모’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다. 김부식이 들은 선도성모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중국 황실의 딸, 남편 없이 임신, 바다 건너 진한으로 옮, 해동의 시조가 된 아들을 낳음, 지선(地仙)으로 선도산에 살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말미에 동신성모의 존재를 선도성모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위의 기록을 보면 김부식은 선도성모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중국에 가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단지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김부식은 선도성모가 낳은 ‘해동의 시조가 된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선도성모 전승은 신라의 건국신화로써 의미가 부정되기도 하였다.<sup>7)</sup> 신라의 역사나 전승에 해박했던 김부식이 선도성모 전승을 몰랐을 리 없으며, 본래 독립된 산신 유래담으로 전승되던 신모계 신화가 고려 이후 민간층에서 형성되어 유포되면서 기존의 건국신화를 잠식하여 국조신화로 역변이화 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sup>8)</sup> 이에 따르면 건국 시조와 관련을 가지는 시조모 전승으로 고려시대

6)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第12 敬順王條.

7) 서대석, 2001, 앞의 책, 101 ~ 102쪽.

8) 김준기, 1995, 앞의 논문, 67~70쪽.

에 만들어진 것이 된다.

특히 선도성모가 중국 황제의 딸로 표현된 것과 관련하여, 고유의 산신신화가 모화사상이 혹은 한국인으로 중국에 이주한 자에 의하여 중국에 관계를 부회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9)</sup> 또는 중국색으로 윤색된 북방무조적 이야기로 건국신화의 논의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하였다.<sup>10)</sup> 이와 달리 선도성모 전승은 시조도래계 신화로 중세 의식의 덧씌우기는 하였지만 원신신화와 이어져 있는 고대신화의 주인공이고 중세문명을 이식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sup>11)</sup>

선도성모 전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선도성모 전승은 신라 건국신화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김부식이 선도성모 전승을 신라본기 경순왕조(敬順王條) 사론(史論)에 소개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부식이 선도성모 전승을 신라와 관련시켜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도성모가 낳은 아들이 시조가 되었다고 설명한 해동은 신라가 된다.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김부식은 다양한 자료 가운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취사선택하여 실었을 것이다. 김부식이 중국에서 보고 들었다는 선도성모 전승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특기하였다는 것은, 신라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명칭이 ‘선도성모’였는지와는 별개로, 김부식이 중국 우신관에서 보고 들었다는 선도성모와 같은 의미를 지닌 존재가 신라에도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에는 공식화된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는 다른 계통의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전

9) 李丙燾, 1977,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211쪽, 역자 주 3; 鄭求福 外, 1997,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 上), 韓國精神文化研究院, 392쪽.

10) 이지영, 1995, 앞의 책, 161쪽.

11) 조동일, 1999, 「시조도래 건국신화의 중세인식」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 문학』, 지식산업사, 141 ~ 142쪽.

해지고 있었고, 이것을 알고 있던 김부식은 시조모로서의 의미를 가진 ‘선도성모’ 이야기를 신라본기 말미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실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김부식은 선도성모 전승 소개 말미에 동신성모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김부식이 언급한 동신성모는 고구려 시조인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부식의 지나친 방증 의욕이 초래한 오류로 보기도 하였다.<sup>12)</sup> 나아가 우신관에 있었다는 여선상(女仙像) 역시 유화였을 것으로 추단하면서 부여와 고구려에서 신봉되던 동신성모 유화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쳐 고려 때까지 계속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어려워 선도성모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렇지만 고려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시조모인 유화가 고려시대 신앙의 대상으로 남아 있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궁이 고려를 방문하고 쓴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유화와 관련된 동신사(東神社)가 소개되어 있어, 고려시대에도 고구려 시조모 유화에 대한 숭상이 있었음을 수 있다. 동신성모를 언급한 김부식은 여기서 동신성모가 곧 선도성모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서 동신성모를 선도성모와 같은 의미로 함께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선도성모는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서의 의미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김부식은 신라의 시조모로 선도성모 전승을 소개하면서 그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 했는지는 알지 못 하겠다’고 했을까? 선학들도 지적했듯이 신라의 역사나 전승에 해박했던 김부식이 말이다.<sup>14)</sup> 김부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첫 머리에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를 소개했다. 이 외에도 후에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

12) 천혜숙, 1007, 앞의 논문, 183쪽.

13) 김준기, 1995, 앞의 논문, 71쪽.

14) 김준기, 1995, 위의 논문, 67~70쪽.

는 석씨·김씨의 시조라고 하는 탈해와 알지의 탄생담도 실었다. 선도성모 전승을 소개했던 신라본기 경순왕조 사론에서도 선도성모 전승 바로 앞부분에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는 이들 박·석·김 삼성의 시조 탄생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신라에 시조모 전승이 있었지만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공식화된 신라 왕계의 시조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신라에는 혁거세를 비롯하여 탈해·알지 등 왕계를 형성한 삼성의 시조전승이 있었지만, 시조모는 이들 삼성 시조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부식은 신라본기에서 시조모 관련 전승을 소개하면서도, 특정 시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결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 별도로 시조모 전승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음 『삼국유사』 기이편과 감통편에 실린 신라의 시조모 전승을 살펴보자.

1-② 해설하는 이는 말하기를, “이는 서술성모(西述聖母)가 낳은 바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람이 선도성모를 찬미하는 글에 ‘어진 인물을 낳아 나라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있으니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계룡(鷄籠)이 상서를 나타내어 알영(闕英)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또한 서술성모의 현신을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sup>15)</sup>

1-③ 진평왕대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니가 있었는데 어진 행실이 많았다. 안흥사에 살았는데 불전을 새로 수리하려 했으나 힘이 모자랐다. 그때 꿈에 모양이 예쁘고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한 선녀가 와서 위로하며 말했다. “나는 선도산성모이다. …중략…” 지혜는 놀라 깨어 무리들을 데리고 신사(神祠)의 자리 밑으로 가서 황금 1백60냥을 파내어 불전을 수리했는데, 모두 신모가 한 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사적만은 남아 있고 불

15) 『三國遺事』 卷1 紀異第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사는 폐지되었다.

신모는 본래 중국 황실의 딸로 이름은 사소(娑蘇)였다. 일찍이 신선술을 얻어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러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더니, 아버지 되는 황제가 서신을 밭에 매어 보내면서 이르기를, “술개가 머무는 곳을 따라 집을 삼아라”고 하였다. 사소는 서신을 보고 술개를 놓았더니 날아서 이 산에 이르러 멈췄으므로 따라와서 이곳을 집으로 삼고 지선(地仙)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서연산(西蔦山)이라고 한다.

신모가 오랫동안 이 산에 웅거하여 나라를 진호하였는데, 신령스런 이적이 아주 많았다.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언제나 삼사(三祀)의 하나로 삼았고, 그 차례도 여러 망제(望祭)의 위에 있었다. 제54대 경명왕은 매사냥을 즐겨 일찍이 이 산에 올라 매를 놓았다가 잃어버리고 신모에게 기도하기를, “만약에 매를 찾게 되면 봉작해드리겠습니다.”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매가 날아와서 궤 위에 앉으므로 대왕으로 봉하였다.

그가 처음 진한에 이르러 성자(聖子)를 낳아 동국의 처음 임금이 되었고 하니 아마 혁거세왕과 알영부인 두 성인의 유래일 것이다. 그러므로 계룡, 계림, 백마 등으로 부르는 것은 닭이 서쪽에 속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제천(諸天)의 선녀들에게 비단을 짜게 해서 붉은 색으로 물들여 조복을 만들어 그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이로 인해 비로소 신비한 영험을 알았다.

또 國史에 史臣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부식이 정화연간에 일찍이 사신으로 송나라에 들어가 佑神館에 나아갔는데, 한 집에 선녀의 상이 모셔져 있었다. 館伴학사 王黼가 말하기를, “이것은 귀국의 신인데 공은 아시는지요?”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옛날에 중국 황실의 딸이 바다를 건너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해동(海東)의 시조가 되었고, 황제의 딸은 지선(地仙)이 되어 길이 선도산(仙桃山)에 있으니 이것이 그 형상입니다”고 하였다. 또 송나라 사신 왕양(王襄)이 우리 조정에 와서 동신성모(東神聖母)에게 제사한 제문을 보았는데, ‘어진 사람을 낳아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글귀가 있다.<sup>16)</sup>

16) 『三國遺事』 卷5 感通第7 仙桃聖母隨喜佛事條.

위의 기록은 신라에서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을 소개하고 있다. 1-②에서는 신라의 건국 시조를 서술성모가 낳았다는 전승을 소개하면서, 『삼국사기』에 소개되었던 선도성모와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1-③에서는 앞서 김부식이 소개했던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1-②와 1-③에서도 인용되어 있듯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남긴 선도성모 전승을 보았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일연이 김부식이 소개한 선도성모 전승을 토대로 시조모 전승을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삼국유사』 기이편과 감통편을 보면 그 대상이 『삼국사기』에서 말한 선도성모와 같은 존재인지와는 별개로, 적어도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에 대한 전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②은 『삼국유사』 기이편 신라시조혁거세조에 협주(夾註)로 실려 있는 내용이다. ‘신라시조혁거세’ 본문에는 신라의 건국시조인 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천강담이 실려 있다. 이에 대한 협주로 일연은 서술성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위의 전승을 소개하였다. 이는 신라에 계통을 달리하는 두 가지 건국신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문에서 소개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전승 외에, 협주에서 해설하는 이의 말로 소개된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있었던 것이다.

1-②를 살펴보면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를 서술성모로 표현하고 있다. 서술성모는 도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선도성모라는 이름보다 원형적인 명칭으로 보인다. 김부식이 중국에서 보고 들었다는 선도성모와 별개로, 신라에 서술성모라는 원형적인 이름으로 불리던 존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신라에 독자적인 서술성모(선도성모) 전승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서술성모는 별도의 산신 신앙인데 고려시대의 분위기로 인해 국조신화로 변이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sup>17)</sup> 이에 따르

면 서술성모는 산신에 지나지 않으며, 건국신화로서 의미가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 감통편에 실린 1-③의 내용은 진평왕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진평왕대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사를 일으키려 할 때 선도성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늦어도 신라 중고기에 불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홍보되었던 시조모로 인식되던 존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선도성모는 ‘나라가 세워진 후로 항상 삼사의 하나로 삼고 그 서열이 산천제사인 망제(望祭) 위에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나라가 건립된 이래로 국가적인 제사 대상으로 숭상되던 시조모의 존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시조모가 낳았다는 시조가 누구냐이다. 『삼국유사』에는 서술성모, 혹은 선도성모로 표현되는 시조모가 건국시조인 혁거세를 낳은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신라에 시조모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아들이 어느 때 왕 노릇했는지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왕과의 연결시키지 않았던 『삼국사기』와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시조모가 낳았다는 시조는 혁거세가 되는 것이다. 김부식이 모른다고 했는데, 일연은 시조모를 혁거세와 연결시킨 것에 대해 김부식 시대에는 혁거세-선도성모 자모설(子母說)은 생기지 않은 것이며, 이후 선도성모와 서술성모가 혼용되면서 부회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17)</sup>

그런데 시조모 전승을 검토해보면 시조모는 시조로 알려진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과도 관련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시조모 전승을 검토해보면 시조모가 낳았다고 한 것은 혁거세만이 아니었다. 시조모는 알영의 탄생과도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이편에서는 계룡과 관련된 알영의 탄생담과 관련하여, 시조모의 현신으로 설명할 정도였다. 감통편에

17) 김준기, 1995, 앞의 논문, 67~70쪽.

18) 김상기, 1964, 앞의 논문, 24쪽.

서도 시조모가 낳은 동국의 첫 임금인 성자는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조모는 혁거세만이 아니라 알영의 어머니기도 하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 6촌장의 추대로 즉위했다는 천강담 계통의 건국신화에서도 알영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시조비로 설정된 알영은 우물에 나타난 계룡의 열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독자적인 탄생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왕비가 된 후에 혁거세가 육부를 순무(巡撫)하는데, 알영이 함께 따라가서 농상(農桑)을 권독(勸督)하여 지리(地利)를 다하게 하였다고 할 정도이다.<sup>19)</sup> 이와 함께 혁거세와 알영을 함께 ‘이성(二聖)’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두 사람을 함께 ‘이성’으로 지칭하고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신라의 건국신화에서 알영이 혁거세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혁거세를 시조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는 후대에 형성된 것이고, 그 이전에 국가적 시조로 여기던 대상은 알영이었으며 신궁 설치 이전 신라에서 중요한 국가 제사였던 시조묘의 대상은 알영으로 본다는 견해를 발표한 적이 있다.<sup>20)</sup> 시조모 전승 역시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시조모 전승에서는 시조모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닌 알영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렇게 이해할 경우 신라의 삼성 시조의 탄생담을 언급하면서, 시조모가 낳은 아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김부식의 기술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시조모가 건국시조인 혁거세를 낳았다고 하면서도 알영과도 연결을 시킨 일연의 태도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9)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始祖赫居世居西干17年條.

20) 김선주, 2010, 「신라의 알영 전승 의미와 시조묘」, 『역사와 현실』 76.

신라에서는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 외에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는 전승이 있었다. 이 시조모 전승은 건국신화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조모는 서술성모라는 원형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부식에 의해 중국의 선도성모 전승이 소개되면서 차츰 선도성모와 혼재되어 이해되다가 차츰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sup>21)</sup> 뒤에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정착되는 이 시조모는 신라의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선도산에 살면서 신라를 보호해주며 각종 이적을 행하는 존재로 국가적인 제사의 대상으로 숭배되었다.

그런데 이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조는 혁거세가 아니라,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이었다.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공식적인 건국신화와 이나 탈해·알지 등 삼성의 시조신화와 충돌을 일으키는 이러한 시조모 전승에 대해 김부식은 중국에서 들은 선도성모 이야기를 소개하는 식으로 기재하면서도 시조모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일연은 혁거세의 천강담 외에 시조모 전승을 신라의 건국신화로 전했는데, 여기서는 공식적인 건국시조인 혁거세를 시조모와 연결시키면서 원래의 주인공이었던 알영에 비중을 두어 설명했다. 혁거세의 천강담에서 부부 관계로 표현되었던 두 사람이 시조모 전승에서 남매 관계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선도산의 역사 지리적 환경

---

21) 김상기, 1964, 앞의 논문, 24쪽.

신라에는 혁거세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와 별도로 시조모 전승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가 있었다. 신라인들은 시조모로 여겨지고 있는 존재가 선도산에 살면서 신라를 보호해 준다고 여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는 신라인들이 선도산을 보통의 장소와 다른 특별한 장소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신라인들이 시조모가 주재하는 특별한 산으로 여기고 숭배했던 선도산은 어디일까?

현재 경주에는 선도산으로 불리는 곳이 있다. 선도산은 서악으로도 칭하는데, 경주시내 서쪽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형산강 상류인 서천 너머에 위치하고 있다. 신라 중고기 왕릉들이 분포하고 있는 서악동 고분군이 이 산 자락에 분포하고 있으며, 서악동이라는 마을의 행정명 역시 이 산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이곳을 선도산, 서악으로 불렀다는 것은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경주부 산천조에는 선도산이라는 지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부(府)의 서쪽 7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시대에는 서악(西嶽)으로 불렀다고 하였다.<sup>22)</sup> 이러한 설명은 현재의 선도산(서악)에 대한 설명에도 부합되고 있다. 또한 『동국여지승람』에는 선도산이 서악 외에도 서술(西述), 혹은 서형(西兄), 혹은 서연(西鳶)로도 불렀다고 하였다.<sup>23)</sup>

그런데 『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했던 서술, 서연이라는 명칭은 선도성모 전승 기록에서도 보인다. 1-②에는 서술성모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서술성모는 산의 인격화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자연산으로서의 이름은 서술산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③에서는 소리개 유래와 관련하여 서연산(西鳶山)으로도 불렀다는 것을 기록하였다. 이는 선도성모의 공간적 무

22) 『東國輿地勝覽』 21 慶州府 山川條.

23) 『東國輿地勝覽』 21 慶州府 山川條.

대가 서술, 서연으로 불렸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서형이라는 명칭 역시 문헌사료에 보인다.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와 김춘추와의 혼인에 얽힌 설화에 ‘서악(西岳)’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sup>24)</sup> 『삼국사기』에는 ‘서형산(西兄山)’으로 표현되어 있다.<sup>25)</sup> 서악, 서형이라는 지명이 신라시대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언급한 선도산이 서악으로도 불리었으며 그 외에 서형·서술·서연으로 불리었다는 기록의 연원은 신라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되었던 오늘날에도 서악으로 부르는 경주지역의 선도산을, 신라시대 선도성모 전승의 공간적 무대였던 선도산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선도산으로 불리는 이 산이 왜 시조모 전승의 배경이 되었을까? 천년동안 신라의 수도로 자리했던 경주지역은 고대 도시를 형성하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태백산맥의 지맥인 동대산맥과 주사산맥이 남북으로 주행하여 동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형산강구조곡(兄山江構造谷)과 영천~경주간 구조곡이 교차하는 지점에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침식분지에 형성되어 있다.<sup>26)</sup> 이 분지에 경주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북쪽에 북천, 남쪽에 남천이, 서쪽에는 형산강의 상류인 서천이 삼면을 감싸고 있다. 이 하천너머로 남산·소금강산·명활산·선도산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다.

서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선도산은 태백산맥의 지맥인 주사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달리며 형성되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옥녀봉·벽도산이 있다. 이들을 기점으로 주변에 구릉과 평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시 곳

24) 『三國遺事』 卷1 紀異第2 太宗春秋公條. 다만 『삼국유사』에는 서악(西岳)으로, 『동국여지승람』에는 서악(西嶽)으로 漢字 차이가 있는데, 악(岳)과 악(嶽)은 서로 통용 글자이므로 다른 지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25)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第6 文武王卽位條.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경주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142쪽.

곳에는 실개천을 둘러싼 협곡평야와 소구릉을 일으키고 있다. 실개천은 선도산 남쪽과 선도산 북쪽으로 각각 대천과 평창천에 흡수되어 서에서 동으로 사행하여 서천인 형산강에 합류한다. 이들 하천이 서천에 유입되면서 충적평야가 만들어지는데, 선도산 동쪽 앞으로는 서악들이라고 부르는 평야가 전개되고 있다. 선도산 주변의 곡저평야(谷底平野) 지대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선도산은 동쪽에서 흘러드는 남천과 서쪽에서 흘러드는 대천이 차례로 합류하여 서천을 이루어 북류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선도산에서 보면 남동쪽으로 남산, 북동쪽으로 소금강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의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남천과 북천이 감싸 도는 경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sup>27)</sup> 그러면서 선도산은 동쪽으로 서악들 너머 형산강이 전개되고 있어 경주 중심 평지와는 차단된다. 또한 경주 시내를 바라보는 남동쪽은 완만하지만, 북서쪽으로는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를 형성하고 있다.

선도산 주변의 곡저평야(谷底平野)지대는 인간이 생활하기에 적당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 선도산 사면과 주변에는 상당수에 달하는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실시한 서악지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문화유적으로 선사유적이 12개소, 왕릉 6개소, 분묘 6개소, 고분 23개소, 산성 1개소, 봉수지 1개소 등 고고유적이 51개소, 불교유적 6개소 등의 유적이 조사보고 되었다.<sup>28)</sup>

선도산 유역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은 신라 중고기 왕릉일 것이다. 중고기의 첫 왕이었던 법흥왕릉에서부터 진흥왕릉·진지왕릉·무열왕릉 등

27) 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慶州西岳地域地表面調査報告書』, 98쪽.

28)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 지형 등을 고려하여 서악지역의 범위를 서악동, 충효동, 효현동, 광명동, 울동, 석장동으로 잡았다. 이들은 선도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도산의 문화권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라 중고기 왕릉이 선도산 자락에 분포하고 있다. 현재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 것은 선도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태종무열왕릉뿐이지만, 태종무열왕릉 위치와 관련하여 설명했던 애공사와 영경사가 이들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의 위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어, 중고기 왕릉들이 태종무열왕릉과 같은 선도산 일대에 조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왕릉 외에도 산 정상부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간 각 지릉에는 대·소형 고분들이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으며, 전(傳) 김인문묘, 김양묘도 선도산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선도산 지역에는 불교유적도 분포하고 있다. 무열왕릉 동북쪽 경사지에는 모전석탑 계열의 서악동 3층 석탑이 있고, 선도산 서쪽 뒷면에는 효현동 3층 석탑이 있다. 현재 위치 추정은 어렵지만 중고기에 유명했던 애공사와 영경사도 선도산 지역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선도산 정상에는 7세기 후반에서 8세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암벽에 마애삼존불이 새겨져 있다.<sup>29)</sup> 선도산 바로 지척에 위치한 벽도산에도 두대리 마애불로 알려진 마애삼존불이 있다. 선도산에 위치한 마애불이 동향이라면 벽도산 마애불은 서향을 하고 있어 서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sup>30)</sup>

뿐만 아니라 선도산 마애불이 있는 위치에 성모의 영령을 모시는 성모사(聖母祠)가 있으며, 바위에는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성모구기(聖母舊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선도산 중턱에는 돌로 쌓은 신라시대 산성이 남아 있다. 산 정상을 포위하면서 동북쪽의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산 중턱을 따라 쌓은 퇴피식 산성이다. 진평왕대 서형산성을 쌓았다는 기록

29) 진홍섭, 1962, 「경주 서악리 마애불의 협시보살」, 『미술자료』 6집,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1977, 「선도산 아미타삼존대불론」, 『미술자료』 21, 국립중앙박물관.

30) 문명대, 1967, 「경주 서악불상(선도산과 두 대리 마애불에 대하여)」, 『고고미술』 104, 한국미술사학회; 진홍섭, 1976, 「慶州 斗垈里 磨崖石佛立像」, 『韓國의 佛像』, 일지사.

이 있어<sup>31)</sup> 진평왕 무렵에 쌓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2)</sup>

또한 선도산 일대에는 선사 시대 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선도산 능선 경사면에는 성혈과 형태를 알 수 없는 음각된 흙선들이 새겨진 바위가 발견되었다.<sup>33)</sup> 또한 선도산과 같은 주사산맥의 연장선상에 있는 인근 옥녀봉 자락인 금장대에는 물상이 새겨진 암각화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주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물상암각화이다. 성혈과 물상이 새겨진 암각화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선사시대에 신성시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암각화가 발견된 금장대가 있는 석장동 일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무문토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sup>34)</sup> 또한 선도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서악동 일대에서 무문토기와 석부가, 선도산의 다른 자락인 효현동 일대에서도 무문토기, 마제석축, 석부, 방추차, 석추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선도산과 옥녀봉 사이의 충효동 일대에서 무문토기와 유구석부가 발견되었다. 경주지역에서 선사유적 조사 사례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선도산 일대에서 발견된 이들 유물 출토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선도산 유역에는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고인돌은 건천으로 통하는 도로변인 충효동, 효현동, 광명동, 울동, 석장동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경주지역에서 고인돌이 선도산 자락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고인돌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행해진 파괴를 거치고 요행히 남아 있는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도산 유역에 상당한 규모의 고인돌 축조 사회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1)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第4 眞平王15年條.

32) 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앞의 보고서, 96-97쪽.

33) 박방룡, 1989, 「경주 선도산 성혈유적」, 『도우』 창간호.

34) 동국대경주캠퍼스박물관, 1996, 『석장동유적』 박물관연구총서 제6책.

경주 시내 왕경지역에는 고신라(古新羅)와 통일신라시대 유적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선사시대 유구는 한정적이다. 경주지역 유적 분포현황을 보면 선사시대 유적은 대부분 외곽에 분포하고 있다. 사로국 형성과 관련되어 주목받은 토광묘 유적 역시 경주 시내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조양동·구정리·입실리 등이 명활산 너머 위치하고 있고, 서남쪽에서 조사된 덕천리는 남산 너머에, 서쪽으로 사라리 유적은 선도산을 넘어 월성을 기준으로 보면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sup>35)</sup>

경주 시내의 경우 오랫동안 신라 왕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매립되거나 깎여 나가면서 잔존하는 유적 예가 드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주 시내 중심지를 발굴해 보면 최하층은 빨 층이나, 모래, 자갈 퇴적층이라고 한다.<sup>36)</sup> 사로 건국당시 주거지가 층적평야로 보기 어렵다고 당시는 경주시내 분지보다 주변의 산록지역이 오히려 이상적인 주거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37)</sup>

그런데 선도산 일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신라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 유적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다. 경주 시내 분지에 분포한 적석목곽분을 제외하면 신라 통일 이전 시기의 문화 유적은 선도산 유역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경주 시내 지역보다 선도산 일대에서 문화 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선도산 일대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선도산이 신라인들에게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은 그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도산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듯이 서약으로도 불리었으며, 그 외에도 서술(西述)·서형(西兄)·서연(西鸞)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었다.

35) 이현혜, 2008, 「고고자료로 본 斯盧國 六村」, 『한국고대사연구』 52, 212쪽.

36) 신창수, 2002, 「신라의 왕경」, 『강좌고대사』 2, 175쪽.

37) 金元龍, 1987, 「斯盧六村과 慶州古墳」, 『韓國考古學研究』, 559쪽.

1장의 1-③에서는 선도성모가 선도산에 머물게 되는 계기로 등장했던 ‘소리개’의 모티프에서 ‘서연(西鸞)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연(鸞)이 소리개를 뜻하기 때문이다. ‘수리’에서 한자의 뜻을 차용하여 ‘연(鸞)으로, 그 음을 차용하여 ‘술(述)이 되었으며, 여기에다 방향을 보여주는 접두어인 ‘서(西)’를 붙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38)</sup>

그러나 소리개의 모티브에서 ‘수리’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경우, 또 다른 이름인 서형(西兄)이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리는 새 보다는 고대의 이름과 지명에 많이 나타나는 최고라는 의미의 ‘수리’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sup>39)</sup> ‘술(述)은 최고라는 의미의 ‘수리’에서 음을 그대로 한자화한 경우이고, ‘연(鸞)은 ‘수리’라는 음을 다른 글자로 부회되어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형(兄)은 최고라는 의미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선도산의 다양한 이름은 최고라는 뜻을 가진 ‘수리’에서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도산의 원형적인 이름은 수산(首山), 최고의 산을 뜻한 수리였던 것이다. 여기에 ‘서쪽’이라는 방위를 가리키는 접두어가 붙어 ‘서술·서형·서연’이 된 것이다. 서악은 아예 서쪽이라는 방위의 의미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도교적 색채가 보이는 선도산은 이름 자체가 서쪽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한다.<sup>40)</sup> 신라에서는 통일 이전에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오악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sup>41)</sup> 서쪽이라는 방위가 붙게 되거나, 아예 서쪽 산이라는 뜻을 가진 서악이라는 이름은 이같은 중고기 오악관념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을

38) 黃滄江, 1971, 앞의 논문, 7쪽.

39) 천혜숙, 2007, 앞의 논문, 196-197쪽.

40) 선도는 도교에서 곤륜산에서 나는 북송아이고 곤륜산은 중국적인 우주론에서는 서악을 뜻하므로, 선도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서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金台植, 2007, 앞의 논문, 413-414쪽).

41) 李基白, 1972,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206쪽.

것이다.

### Ⅲ. 사료국에서 돌산고허촌의 위상

현재 경주에 있는 선도산은 높이가 불과 380m에 불과하다. ‘수리’라는 이름이 높이 때문이 아니라, 최고라는 의미와 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이가 불과 380m에 불과한 자그마한 선도산을 신라인들은 왜 최고의 산인 ‘수산(首山), ‘수리’로 여기고 숭상했을까? 신라의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가 선도산을 주재하면서 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여겼다는 것은, 선도산이 신라인들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도성모는 선도산의 인격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선도산에 대한 숭배가 선도산에 사는 산신으로 인격화되어 선도성모 신앙이 된 것이다. 신라에서는 선도성모 외에도 운제산성모·치술신모·동악산·남산·신·북악산 등의 존재가 보이고 있다. 이들은 각각 운제산·치술령·동악·남산·북악의 산신이였다. 『신당서(新唐書)』 신라조에 산신을 제사지내길 좋아한다는 기록은,<sup>42)</sup> 신라에서 산신 사상이 발달했음을 보여준다.<sup>43)</sup> 신라인들은 자연산으로서가 아니라, 인격화된 개념인 산신(山神)을 숭배했다.<sup>44)</sup>

앞의 1-③에는 ‘선도산신모(仙桃山神母)’라는 표현이 있는데, 선도성모 역시 선도산에 대한 인격화된 산신신앙임을 알 수 있다. 이 산신신앙

42)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條.

43) 徐永大, 1991,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72쪽.

44) 李基白, 1974, 앞의 논문, 207쪽.

은 강력한 정치체가 성립되기 이전 지역공동체의 이념을 가진 신앙으로 여겨지고 있다.<sup>45)</sup> 산신신앙은 어느 특정지역의 수호신으로, 각 지역의 조상신으로 신앙되었다.<sup>46)</sup> 그렇다면 산신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선도성모 역시 어느 특정 단위 지역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선도산은 ‘서악’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악의 하나인 서악으로 편제되었다. 신라의 오악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있었던 것과 관련시키고 있다.<sup>47)</sup> 왕권이 단위정치체로서의 성격을 지닌 부를 왕경의 행정구역단위로 재편하였던 증거로 오악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sup>48)</sup> 통일기에는 명산대천 제사를 중심으로 대·중·소 삼사(三祀)의 국가제사 체제가 편제되는데, 선도산은 소사(小祀)의 하나로 그 이름이 보이고 있다.<sup>49)</sup> 삼사로 편제된 지역 역시 일정한 씨족 혹은 세력의 연고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up>50)</sup>

산신신앙과 오악이나 삼사의 편입을 정치 세력의 연고지와 관련시켜 이해한다면, 산신신앙을 배경으로 하면서 오악과 삼사인 소사의 하나로 편입되는 선도산 역시 특정 정치적 세력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선도산 일대에는 선사시대부터 통일기 전의 유적·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선도산의 인격화된 개념인 선도성모가 신라의 시조를 낳은 시조모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은 선도산이 신라 초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을 형성했던 단위 정치체를

---

45) 姜英卿, 1991, 앞의 논문, 45쪽.

46) 문경현, 1992, 「신라의 산악숭배와 산신」, 『신라사상의 재조명』(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2), 26-28쪽.

47) 李基白, 1974, 앞의 논문, 209-210쪽.

48) 全德在,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일조각, 82쪽 주71.

49) 『三國史記』卷32 雜志第1 祭祀條. 선도산의 다른 이름인 서술(西述)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50) 신중원, 1992, 「신라 사건의 성립과 의의」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95쪽.

주목해 보고자 한다. 혁거세의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에는 육촌(六村)의 존재가 등장한다. 알천양산촌(闕川楊山村), 돌산고허촌(突山高墟村), 취산진지촌(贅山珍支村), 무산대수촌(茂山大樹村), 금산가리촌(金山加利村), 명활산고야촌(明活山高耶村)이 그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혁거세 출현에 앞서 조선유민(朝鮮遺民)이 산과 골짜기 사이에 나뉘어 살며 육촌을 형성하였다고 했다.<sup>51)</sup>

이는 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이 대두되기 전에 경주지역에 정착해 있던 선주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육촌을 육부(六部)의 전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6촌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도 있지만,<sup>52)</sup> 후대 육부와 직접적인 관계 여부를 떠나 사로국을 형성했던 단위 정치체의 존재가 있었을 것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는 모두 사로국을 형성했던 토착세력으로서 6촌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도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돌산고허촌이다.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육촌을 소개하면서 촌장의 존재와 함께 단강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육촌장들은 모두 특정 산에 하강하였다고 했는데, 돌산고허촌장 소벌도리가 내려온 것은 형산(兄山)이었다.<sup>53)</sup> 선도산의 별칭 중에 하나로 서형산(西兄山)이 보인다. 서쪽이라는 방위의 접두어만을 떼어낸다면 형산이 된다. 경주 인근에서 형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형산이라고 하는 선도산 외에, 안강 지역에 북형산이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돌산고허촌장 소벌공이 양산 기슭을 보다

5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赫居世居西干條; 『三國遺事』 卷1 紀異第2 新羅始祖赫居世王.

52) 6부의 전신으로 나오는 육촌은 촌(村)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였던 중고기 무렵에 본래의 건국신화에 부회된 것으로 보고 6부의 성립자체가 사로국의 건국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보기도 한다(全德在, 1996, 앞의 책, 27쪽).

53) 『三國遺事』 卷1 紀異第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가 나정 옆 수풀 속에서 말울음 소리가 있어 찾아가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했다고 했다.<sup>54)</sup> 양산에 내려오는 혁거세를 발견하려면 양산을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55)</sup> 양산은 현재 남산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고허촌장이 하강했다는 형산 역시 경주 분지 내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돌산고허촌장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형산은 안강의 북형산 보다는, 경주 분지를 감싸고 있는 서형산, 즉 선도산이 더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고허촌이라는 이름은 ‘고(高)’를 의미하는 ‘솟, 솥, 수리’의 대음(對音)으로 여겨지고 있다. 돌산고허촌의 촌장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벌(蘇伐)’ 역시 고유인명이 아니라 특정 정치체의 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sup>56)</sup> ‘고허(高墟)’와 같은 의미의 ‘솟, 솥, 수리’로 해석하고 있다. 돌산고허촌과 관련된 ‘고허’나 ‘소벌’ 모두 선도산의 원형적인 이름이 높다, 최고를 뜻하는 ‘수리’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라 건국의 모체가 되는 단위정치체로서 6촌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비정이 이루어졌다.<sup>57)</sup> 그 가운데 돌산고허촌을 선도산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sup>58)</sup> 돌산고허촌을 사정리를 비롯한 경주시내로 보는 견해<sup>59)</sup>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사로 건국 당시의 주거지가 충적 평야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서악 일대가 이상적인 주거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육촌 세력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뉘어

5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赫居世居西干卽位條.

55) 혁거세를 추대하기 위해 모인 곳과 발견된 곳을 모두 알친 양산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나희라, 1990, 「신라초기 왕의 성격과 제사」, 『한국사론』 23, 서울대 국사학과, 72쪽).

56) 이현혜, 2008, 앞의 논문, 199쪽.

57) 6촌의 위치비정에 대한 연구사적 정리는 全德在, 1996, 앞의 논문, 1-3쪽; 姜仁求, 1997, 「斯盧六村과 國家의 成立段階 試論」『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358-363쪽 참조.

58) 金元龍, 1987, 앞의 논문, 558-561쪽.

59)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602쪽.

살았다고 했다. 선도산은 주사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달리면서 형성되었으며 주변으로 실개천을 둘러싼 협곡평야와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위의 설명에 부합된다. 선도산 일대에 선사시대부터 통일기에 이르는 문화 유적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도 생각할 여지를 준다.

여기서는 선도성모 전승의 무대인 선도산을 돌산고허촌과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돌산고허촌장이 처음 형산에 내려왔다는 설화는 형산, 즉 선도산이 돌산고허촌의 모태로서 숭배되었음을 보여준다.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의 조상신이 강림한 성산이었다. 현재 선도산의 중턱에는 돌로 쌓은 신라시대 산성이 남아 있다.<sup>60)</sup> 산성의 성격이 제사지이기도 했다는 점은 선도산이 신라인들에 의해 종교적인 제장(祭場)으로 숭배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선도산은 신과 만나는 세계의 중심이며, 특별한 제장(祭場)으로 돌산고허촌의 제정(祭政) 중심인 성산이었다.

그런데 왜 돌산고허촌의 성산인 선도산이 신라의 건국신화 중에 하나인 시조모 전승의 공간적 무대가 되었을까?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건국신화를 살펴보면 돌산고허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돌산고허촌장인 소벌공이 하늘에서 내려온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하였다고 했다.<sup>61)</sup>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시조비 알영이 사랑리 알영정에 나타난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sup>62)</sup> 사랑은 훗날 6부 가운데 하나로 사로국 단계에서 돌산고허촌과 연관시키고 있다. 시조비인 알영이 돌산고허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건국신화에서 시조와 시조비가 모두 돌산고허촌과 관련되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건국과정에서 돌산고허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60) 慶州文化財研究所, 1994, 앞의 보고서, 96-97쪽.

61)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第1 赫居世居西干 卽位條.

62) 『三國遺事』 卷1 紀異第2 新羅始祖赫居世王條.

을 보여준다. 육촌은 혁거세 등장 이전에 경주지역에 선주해 있던 토착 세력이었다. 육촌으로 표현되는 이들 선주 집단에서도 중심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시조인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하는데 돌산고허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이 대두되기 전에 돌산고허촌이 경주지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유사』 기이편에는 혁거세 천강담의 배경으로 삼월 삭에 육부의 선조들이 각 자제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에 모여 의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6부가 모여 의논했다는 것에서 이 장면은 공동제의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63)</sup> 『삼국사기』에서도 혁거세의 천강과 관련된 같은 배경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돌산고허촌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그려져 있다. 혁거세 탄강설화의 배경을 공동제의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공동제의를 돌산고허촌장이 주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고허촌은 우리말로 ‘숫벌’이 되는데, 서벌, 서라벌, 사로 등이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서라벌(徐羅伐)에서 ‘서(徐)’는 고(高)·상(上)으로, ‘벌(伐)’을 허(墟)에 대입시켜 돌산고허촌을 상읍(上邑)·수읍(首邑)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64)</sup> 음운학적인 해석이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지만, 신라의 모체가 되는 사로국의 명칭이 돌산고허촌에서 유래했을 가능성과, 촌명이나 촌장의 이름으로 표기된 것이 모두 높다, 최고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사로국 초기에 돌산고허촌의 위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혁거세 천강담은 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이 대두되기 전에 경주지역에 선주 토착세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돌산고허촌은 육촌으로 표현되는 이들 선주 세력을 주도했던 중심 집단이었다. 사로국 초기 단계의 중심촌

63) 安英姬, 1969, 「關英의 發祥地 關川 名義考」, 『亞細亞女性研究』 8, 6쪽.

64) 李丙燾, 1976, 앞의 논문, 596쪽.

으로서 돌산고허촌은 육촌의 공공제의를 주도하였다. 돌산고허촌에서 진산으로 중요한 제장(祭場)이었던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이 경주 일대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단계에 사로국의 성산으로 숭배되었다. 선도산이 경주 지역의 수리산으로 여겨지고, 신라 건국신화에서 시조모 전승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사로국 초기 단계에 돌산고허촌의 위상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라의 성장과 함께 경주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이었다. 혁거세로 대표되는 세력으로 경주지역의 주도권이 이동되면서 신라에는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가 정립되었다. 고대국가의 성장과 함께 중앙집권제가 정비되면서 경주 주변의 자치적인 성격을 가졌던 단위정치체들은 점차 자치권을 상실하고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어 갔다. 돌산고허촌의 독자적인 시조전승과 제사 역시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국가적인 시조 전승과 제사 체제로 편입되었다.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에서 돌산고허촌은 시조비인 알영의 출생지로, 또한 돌산고허촌장이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존재로 편입되었다. 돌산고허촌을 배경으로 했던 독자적인 시조모 전승은 민간 전승으로만 남게 되었다. 돌산고허촌의 진산으로 초기에 사로국의 ‘최고’ ‘수리’산이었던 선도산은 경주의 오악 중에 하나인 서쪽에 있는 서악으로,<sup>65)</sup> 통일기에는 삼사로 편제되는 국가제사에서 소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sup>66)</sup>

65) 李基白, 1974, 앞의 논문, 195쪽.

66) 신라의 국가제사체제가 정비된 시기를, 통일기 사직 제사가 수용된 선덕왕 이후, 특히 애장왕대를 주목하고 있다(蔡美夏, 1998, 「《三國史記》祭祀志 新羅條의 分析-新羅 國家祭祀體系的 再檢討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 13, 227-228쪽).

## 맺음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선도성모 전승을 분석한 결과 신라에 토착적인 시조모 전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성모라는 원형적인 이름으로도 나타나는 시조모는 점차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선도성모라는 이름으로 정착되는 시조모 전승은 신라 건국신화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선도성모 전승은 신라에서는 혁거세 천강담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 신화 외에도 시조모가 시조를 낳았다고 하는 다른 계통의 건국신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시조모 전승에서 시조모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조는 신라의 건국시조로 알려진 혁거세 보다 시조비로 알려진 알영이었다.

신라인들은 시조모가 선도산에 살면서 나라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여기고 국가 제사를 드렸다. 시조모 전승의 무대가 되는 선도산은 오늘날 경주에도 선도산으로 부르고 있는 그 곳으로 비정하였다. 선도산은 서쪽이라는 방향이 강하게 들어간 서악 외에 서술산·서연산·서형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이름은 최고, 높다의 의미의 ‘수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신라인들은 선도산을 최고의 산으로 여기고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선도산 일대에는 선사시대와 신라시대에 문화 유적이 산재하고 있어, 선도산이 신라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신라의 건국시조를 낳은 시조모가 선도산을 주재하면서 나라를 보호해 준다고 여겼다는 것은, 선도산이 신라인들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신라의 모태로 인식되고 있는 사로를 형성한 육촌 중에 하나인 돌산고허촌(사랑부)을 주목하였다. 선도산의 원형 이름인

수리는 고허촌이라는 이름이나, 고허촌장으로 표현되었던 소벌과 같은 의미와 관계가 있었다.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의 시조가 내려왔다고 여긴 곳으로, 선도산은 돌산고허촌을 상징하는 진산이었다. 이 돌산고허촌은 혁거세로 대표되는 집단보다 경주에 선주한 토착세력으로, 혁거세 이전에 경주지역의 주도하는 중심촌으로 보았다. 사로국 초기에 돌산고허촌이 경주 일대에 주도권을 가지면서, 돌산고허촌의 진산이었던 선도산 역시 사로국의 진산으로 숭배되었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신라의 성장과 함께 혁거세로 대표되는 세력이 경주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제 돌산고허촌의 독자적인 시조전승과 제의체계는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와 국가 제의 속에 편입되었다. 혁거세를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에서 돌산고허촌은 시조비인 알영의 출생지로, 또한 돌산고허촌장이 혁거세를 발견하고 양육하는 존재로 편입되었다. 돌산고허촌을 배경으로 했던 독자적인 시조모 전승은 민간전승으로만 남게 되었다. 돌산고허촌의 진산으로 사로국 단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던 선도산은 오악 가운데 하나인 서악으로 편제되었고, 통일기에는 삼사 가운데 소사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 Abstract

#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yth of Silla's SeondoSeongmo

Kim, Sun-Joo

In this study, I 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yth of SeondoSeongmo (the Holy Mother) in Silla, which was appeared in "Samguksagi(Official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nd "Samgungnyusa(Memoirs of Three Kingdoms)". The myth of SeondoSeongmo showed that Silla had the another founding myth in which dynastic founder was born by his mother, adding to widespread founding myth of Hyeok-geo-se which was myth of human birth from Egg. This myth of the mother of dynastic founder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name of SeondoSeongmo had the meaning as Silla founding myth. In this myth, the dynastic founder relating to SeondoSeongmo was Aryeong, known to us as the spouse of the dynastic founder Hyeok-geo-se.

The myth of SeondoSeongmo had background in the area of mountain Seondo (or Seo-ak). The original name of mountain Seondo was "Soo-ri", which meant the top, or high. Also, the area of mountain Seondo had many cultural rerved mains of Silla since pre-historical period. It meant this area had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Silla. I think that mountain Seondo was related to Dolsan goheochon which was one of the six villages, formed Saroguk which was ancient Silla.

Dolsan goheochon was leading village in Gyeongju area before the power led by Hyeok-geo-se was gathering strength. Mountain Seondo was the Holy mountain of Dolsan goheochon and worshiped as the Holy mountain of Saroguk in early days when Dolsan goheochon kept a hold of Gyeongju area. However, Dolsan goheochon lost the initiative when the power led by Hyeok-geo-se was gathering strength. Consequently, the status of mountain Seondo was changing. With this change, the founding myth of Silla was organized with Hyeok-geo-se as the central figure.

Key Words : Silla, founding myth, SeondoSeongmo(the Holy Mother), the founder of Silla dynasty, Mountain Seondo, Dolsan goheochon(one of the six villages in ancient silla)